

# 광주글로벌모터스 누적 생산 20만대

(GGM)

## 회사 설립 6년만에 이룬 성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 정착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완성차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GGM은 2021년 9월 캐스퍼 제1호 차 양산을 시작해 2023년 10월 10만대를 달성했다.

2024년 7월부터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본격 생산하고, 10월에는 전기차 수출명 '인스터'를 해외 시장에 선보이며 양산 시작 약 4년여 만에 누적 생산 20만대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8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캐스퍼 20만대 양산

기념 근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어 GGM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GGM 윤몽현 대표이사과 임직원, 임한서 상생협회의회장, 상생협의회 위원인 김진태 GGM 노조지회장을 비롯한 상생협의회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성과를 축하했다.

GGM의 20만대 달성은 어려운 국내 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캐스퍼(인스터)는 합리적 가격, 실용적 디자인, 친환경 기준 충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66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메이드 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GGM은 설립 당시부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까지 682명이 고용돼 있으며, 향후 2000명 규모의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 생산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업체 매출 증대, 연관 산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GM은 4년 만에 20만대 양산 달성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 불황과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국내 제1호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GGM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냈다"며 "GGM은 목표생산량 추가 달성과 차종 다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노동의 가치와 상생의 가치는 모두 소중하다. 시민들과 함께해온 2018년 이후 우리의 약속인 상생의 가치를 키워가면서 노동의 가치 씨앗도 계속 키워가자"며 "이처럼 작은 상생의 시작이 성과를 보여간다면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GGM은 앞으로 생산역량을 더욱 강화해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시는 GGM이 글로벌 전문 완성차 공장으로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소득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고홍석기자**



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20만대 양산 기념 표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 서해해경청,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 주요단속대상 선체 길이 변경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불법 증·개축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개조로 인한 선박 전복이나

화재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서남해역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불법 증·개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곳이다. 실제로 해경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법 증·개축 행위 298건을 적발하며 문제

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체 길이나 너비 변경, 추진기관 종류·출력 변경 구조 및 설비 불법 변경, 수리 후 임시 검사 미실시, 검사 후 상태 불량 유지 등이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선박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를 병행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어업인 스스로 안전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선박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역 어업인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창덕기자**

## '마륙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 정부예산안에 공사비 반영 도시공간 재편·지역발전 전기

지난 50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며 광주 도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마륙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된 다.

광주시는 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마륙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륙동 탄약고는 광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 수십 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규제가 뒤따르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도심 속 낙후 공간"이라는 불만을 호소해왔으며, 이전 필요성은 오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아왔다.

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5년 정부 승인을 받으며 첫발을 뒀고, 2023년 까지 총사업비 3천262억 원 중 2천 681억 원이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로

투입됐다.

그러나 같은 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며 주민 불신과 행정 혼선을 키웠다.

이번 예산 반영은 단순히 중단된 사업이 재가동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숙원으로 여겨온 도시 공간 재편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시는 지난 7~8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안정적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역시 탄약고 이전이 단순한 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도시 안전망 강화와 장기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은 "이번 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뿐 아니라 도심 재구조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직결된다"며 "수십 년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 재산권 보호와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홍석 기자**

## 세계양궁대회 연계 시티투어 운영

광주시는 지난 5일 개막해 28일까지 열리는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국내외 참가자와 방문객이 광주의 매력을 체험하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회 기간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호스트 시티 투어'를 마련해 △전 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양림동 등 시내 명소와 △국립5·18민주묘지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창평마을 등 근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풍부한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한다. '광주

투어버스' 앱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로 지정된 13개 구역 내 원하는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환승과 다양한 요금제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다국어 안내와 관광·숙박·맛집 정보, 이벤트,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며, 국·영·중·일 4개 언어로 관광가이드 북과 지도를 배포한다.

광주시는 '광주관광' 누리집과 '비짓광주' SNS, 오프라인 기자단 취재 콘텐츠로 광주와 대회의 매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고홍석 기자**

K-패션의 자신감 머스바리

입고 싶은 옷

**musbri**

Clothes are wings